

A Good Man (working title)

Synopsis (One line)

사고로 기억과 공포심을 동시에 잃어버린 평범한 40 대 중반 남자가 가정불화와 경제적 무능함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과감히 차버리고 진정한 삶과 자유를 찾아 떠난다.

Synopsis (short)

나이 40 중반이 되도록 무능력하게만 살아오던 남자 근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림과 동시에 '공포 호르몬의 부재' 라는 희귀한 증상을 갖게 된다. 사고 이후, 이전부터 꿈아 왔던 가족간의 불화로 말미암아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고 잡일, 막노동을 하며 알콜과 마약에 빠져가는 등 점점 폐인이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신의 폐인 생활을 극한의 자유로 미화시키며 자신을 더욱 망가뜨려 가다가 최악의 상태에 이를 즈음 친구들에게 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재활하고 정상인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늦은 나이의 친구들 각자는 저마다의 가족간에 회복 불가능한 불화를 겪고 있고, 자신이 없을때 친구들에게 발생한 모든 최악의 현실들을 전해들은 구만이 현실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코스타리카로의 탈출을 제안한다. 현대사회가 빚어낸 가족과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지친 친구들 모두 함께 떠나기로 결의하나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피할수 없는 최악의 갈등 상황들을 맞닥들임으로 인해, 서로 살해하고 살해당하는 참사를 겪게 되고, 결국 근만 홀로 아수라장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차를 몰아 간다.

Synopsis (Long)

근만은 나이 40 대 중반이 될때까지 가족을 돌볼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부인의 경제력에 빌붙어 생활하는, 술을 즐기는 한량과의 인물이다. 처가집에서 무시받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마저 존경 받지 못하는 구만은 늦은 나이에 부인의 도움아래 회계사 공부를 한다 하지만 크게 열의는 없어 보이고, 그나마 많은 시간을 처가일 돕는데 불려다니며 낭비한다. 자신의 처지와 가족 친지들의 멸시를 참아가며 술로 채워지지 못하는 한을 억눌러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구만, 그의 세명의 오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때면 서로 저마다의 비슷한 신세 한탄을 해대기 일쑤다. 나이가 들어 젊음도 정력도 열정도 사라진 중년의 사내들은 각자 겪는 가정생활에서의 설움과 괴로움에 대해서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처지들이다.

그러던 어느날 근만은 이상한 낯새를 알아 채고 부인으로부터 바람 피우는 사실을 자백받게 된다. 더욱더 인생의 회한을 느끼고 있을 즈음, 불의의 강도 사고가 발생하고, 후두부를 강타당한 근만은 기억상실증과 함께 공포를 느끼는 홀몬이 분비되지 않는 희귀한 증상을 가지게 됨을 알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의 비굴하고 겁 많던 근만의 성격이 일순간 180도 변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근만은 이전 기억에도 없는 가족과 친지등을 자발적으로 떠나보내게 되고, 자신 혼자만의 자유로운, 방종의 극을 달리는 생활에 파묻히게 된다. 홀로 누추한 아파트를 얻어 살며 우연찮은 기회에 접하게 된 마약의 굴레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그나마 생활을 유지시켜주던 पार्ट타임 식당일에서도 쫓겨나고 그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 간단한 잡일을 도우며 식사를 해결하고 쪽잠을 자던 지인들의 업소 등에서도 계속 쫓겨나게 된다. 결국 완전한 노숙자 신세가 된 근만은 마약에 알콜중독이 심하게 악화되며 건강상태가 최악으로 치달고 결국 길거리에 쓰러지게 된다.

병실에서 눈을 뜬 근만, 오랜 친구인 형수에게 극적으로 구명이 되어 마약과 알콜로 부터 재활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신이 마약에 빠져 있던 지난 세월동안 악화될대로 악화된 친구들의 가족, 생활 상황을 모두 전해듣는 근만, 자신이 꿈꾸던 코스타리가로의 탈출을 친구들에게 제의하게 된다. 비굴한 현실도피일까 진정한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까? 친구들은 현대사회의 각종 병폐에 찌들대로 찌들어 근만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에 대한 준비를 꾸리게 된다. 국가보조혜택을 받아서 고가의 심장수술을 공짜로 해보려고 위장이혼했던 부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재산마저 다 빼앗긴 채 쫓겨나게된 형수, 이혼수속을 해놓지 않았던 전처가 수년만에 다시 찾아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통에 자신의 집에서조차 지옥을 경험하는 민호,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내 억센 부인의 괘시와 횡포를 견디어 내다 결국 실어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병 마저 얻어버린 우정, 그리고 근만, 이렇게 4인이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던 중, 심장이 여전히 좋지 않은 형수가 전부인에게 약간의 돈을 나눠줄 것을 다시 부탁하러 가게되면서 형수처의 악마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행 등이 발생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심장의 증세 악화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쌓일대로 쌓인 근만이 가짜 여권등 서류를 준비해 주던, 마약딜러였던 이전 직장동료를 덮치는 강패들을 처절히 응징하게 되고, 또한 친구들 각각의 가족들과의 피할수 없는 대립으로 인해 의도치 않았던 연쇄 살인극마저 벌어지게 되는 등, 결국 친구들마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더우기 근만의 기억상실증이 애초에 의도된 조작극이었고 그로인해 근만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가족과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늦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새로운 자유를 얻고자 했다는 사실이 연쇄 살인극이 벌어지는 도중 우연히 밝혀지게 된다. 처절한 살육이 끝나고 홀로 오픈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근만의 옆자리엔 피로 물든 돈다발이 쌓여있다.